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2분기부터 미 경제 둔화 조짐
- Bloomberg: '유권자들 경제 측면에서 바이든 보다 트럼프 선호'
- Bloomberg: 연준 관리들, "고금리 정책 더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

#### [미국 금융]

- Bloomberg: 한 달 새 미국 머니마켓 시장 최고치로 상승

#### [그린 헬스]

- Bloomberg: '기후 변화가 뇌 건강에 영향 준다'

#### [미중 경제]

- Finance Yahoo: 바이든이나 트럼프 정부 관계없이 미중 무역정책 가열된다
- Bloomberg: 제조업 향한 중국의 베팅 ... 미중 무역 전쟁 탓에 리스크 상승

#### [오일]

- Reuters: 유가 상승세 ... 수요 강세 기대감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중간 가격대 소매 상품'
- Bloomberg: ING, 지속적인 항공료 상승 예상 ... 공급망 문제 때문
- WSJ: IBM, 클라우드 보안 소프트웨어 매각한다
- Bloomberg: 월그린과 CVS, 무너져가는 미국 약국 살린다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From US Stores to Factory Floors, Second Quarter Starts Out Slow**

##### **2분기부터 미 경제 둔화 조짐**

- 수요 둔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이번 주 경제 지표들은 미국 경제가 2분기에 둔화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 어제 목요일 관련 지표에 따르면 미 주택 건설과 제조 활동이 예상보다 둔화했고, 소매 판매도 둔화되고 지난 6개월 사이에 인플레이션도 처음으로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준 관리들은 고금리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번 데이터를 감안할 때 미 경제가 둔화되어 연준 관리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고 있다.
- BMO Capital Markets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Sal Guatieri는 "미 경제가 제약적인 통화정책에 직면한 가운데 모멘텀을 잃고 있다"면서 그러나 "인

플레가 얼마나 빨리 둔화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고 진단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Voters Prefer Trump Over Biden on Economy. This Data Shows Why**

**‘유권자들 경제 측면에서 바이든 보다 트럼프 선호’**

- 여론 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경제 측면에서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 4월 블룸버그/모닝 컨설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트럼프 때가 바이든 때보다 재정 상태가 나았다는 비율이 각각 51%대 32%로 나타났다.
- 15개의 경제 설문 항목 중에 일상 경제 이슈가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였다.
- 바이든이 지난 수십년간 비교했을 때 강한 일자리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활 수준 상승이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 소득, 인플레 부문에서 앞섰지만 바이든은 성장과 일자리에서 앞섰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Fed Officials Suggest Interest Rates Should Stay High for Longer**

**연준 관리들, “고금리 정책 더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

- 연준 관리들은 지속적인 고금리 정책 입장을 보이면서 인플레 둔화 현상에 대한 더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클리프랜드 연준 총재, 뉴욕 연준 총재, 리치몬드 연준 총재들은 어제 목요일 서로 다른 행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연준은 2% 물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 클리프랜드 연준 총재인 Loretta Mester는 “최근 지표들을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확인한 인플레가 보여질 때까지 제약적인 정책 입장을 유지하는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 Bloomberg: US Money-Market Assets Rise to Highest Level in a Month 한 달 새 미국 머니마켓 시장 최고치로 상승

- 최근 데이터들이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금리 상승이 펀드를 유인하면서 머니마켓 자산이 상승하고 있다.
- Investment Company Institute에 따르면 5월 15일까지 1주일 동안 1백64억달러가 미국 머니마켓 펀드로 유입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에 총 관련 자산이 6조 3천억달러에서 6조 5천억 달러로 불었다.
- 구체적으로 주로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RP), 기관채와 같은 증권에 투자하는 정부펀드는 1백72억달러 증가해 자산이 4조8천9백억불이 되었다.

Bloomberg 기사

### [그린 헬스]

## Bloomberg: Climate Change Is Affecting Brain Health, Study Finds '기후 변화가 뇌 건강에 영향 준다'

- 글로벌 기온이 올라가면 치매, 간질, 우울증과 같은 건강 상태가 전염되고 악화될 수 있다.
- 수요일 University College London 발표에 따르면 극심한 열과 기후 변화 관련 질환이 주요한 신경 질환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
- 환경적인 요소가 질환을 만연시킬 뿐만 아니라 병원 입원, 장애, 심지어 사망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연구에 따르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좁은 범위의 온도 범위에서 있어야 한다며 폭염에 뇌신경 계통의 질환자가 있을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미중 경제]

## Finance Yahoo: America's trade wars will intensify under Biden or Trump 바이든이나 트럼프 정부 관계없이 미중 무역정책 가열된다

-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한 인물'에 합류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기 자산의 관세 정책을 추가했다.
- 중국산을 금지하면서 반도체, 전기차, 그린 에너지 기술 등의 국내 생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 한마디로 올 11월 선거에서 누가 승리하든 상관없이 미국의 무역 정책은 더욱 보호주의적인 정책으로 바뀌게 된다.

- 그런데 바이든의 대중국 관세 정책의 문제점은 중국에서 직접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에만 관세를 매기고, 다른 나라에서 중국 회사들에 의해 생산되거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상품들은 미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Finance Yahoo 기사

## **Bloomberg: China's Bet on Manufacturing Ups Risks From Trade Battle With US**

### **제조업 향한 중국의 베팅 ... 미중 무역 전쟁탓에 리스크 상승**

-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제조업에 더 집중되면서 무역 장벽에 취약해지고, 내수 부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금요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예상보다 낮은 2.3%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이후 가장 느린 속도다. 반면, 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예상보다 빠른 6.7% 증가했다.
- 이러한 불균형 회복은 수출과 제조업의 개선 덕분인데, 이는 미국 및 유럽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될 경우 오히려 방해받을 수 있다.

Bloomberg 기사

## **[오일]**

### **Reuters: Oil heads for weekly gain on hopes of firmer demand**

#### **유가 상승세 ... 수요 강세 기대감**

- 금요일,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3주 만에 처음으로 한주간 상승세를 보이며 유가가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경제 양대국인 중국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원유 수요 증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 브렌트유는 1센트(0.01%) 상승한 배럴당 83.28달러를 기록했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5센트(0.06%) 상승한 79.28달러를 기록했다.
- 브렌트유는 지난 금요일보다 약 0.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WTI는 1.3%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Reuters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Latest shipping data reveals that mid-range retail is the new consumer price sweet spot**

####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중간 가격대 소매 상품'**

- CNBC의 공급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홀리데이 시즌에 미국 소비자들이 전반적인 구매를 줄이고 중간 가격대의 소매 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 홀리데이 시즌을 위한 화물 주문은 빠르면 6월부터 시작된다. 현재 화물 주문의 약 80%가 중간 가격대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치품과 고가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C.H. 로빈슨의 소매 물류 책임자인 Noah Hoffman은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더욱 가치 중심적인 소비를 하게 되었다. 충동구매를 많이 하지 않고, 최저가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더 깡깡한 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CNBC 기사

### **Bloomberg: Airfares Can Only Keep Rising Due to Supply Chain Problems, ING Says**

#### **ING, 지속적인 항공료 상승 예상 ... 공급망 문제 때문**

- 승객들이 높아지는 항공 요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항공사들이 항공기, 인력, 예비 부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급증하는 여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ING Bank NV는 글로벌 항공 전망 보고서에서 공급망 제약이 지속되면서 항공업계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 올해 항공 여행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잉사의 제조 문제와 프랫 & 휘트니(Pratt & Whitney) 엔진의 결함 때문에 항공기 공급이 제한되면서 여행 업계의 회복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WSJ 기사

### **WSJ: IBM Selling Cloud Security Software to Palo Alto Networks in Broader Cyber Strategy Shift**

#### **IBM, 클라우드 보안 소프트웨어 매각한다**

- IBM이 클라우드 기반 QRadar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를 Palo Alto 네트워크에 매각한다. 이는 두 회사가 AI 기반 보안 제품의 공동 판매 및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두 회사 모두 매각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규제 당국의 승인을 거쳐 9월 말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 IBM의 CEO Arvind Krishna는 “QRadar 소프트웨어의 매각 목적은 두 회사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자사 제품과 팔로알토의 제품 간의 중복을 없애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 QRadar 소프트웨어는 보안 분석가가 사이버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이다.

## WSJ 기사

**Bloomberg: Walgreens and CVS Are Trying to Fix America's Flailing Pharmacies****월그린과 CVS, 무너져가는 미국 약국 살린다**

- 최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형 체인점인 CVS Health와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의 약국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치열한 경쟁과 인플레이션 속 어떠한 매장의 구조적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이에 대응하여, 수십 년 동안 표준 모델을 바꾸지 않았던 미국의 두 거대 기업은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자 다양한 구조적 변화를 시도 중이다.
- 월그린은 건강 및 웰니스 관련 품목을 줄인 소규모 버전의 매장을 설치하고 있다. 처방을 비롯한 모든 주문이 카운터에서 접수되고 채워지는 방식을 시도하여 잠재적인 도난도 방지한다.
- 라이벌인 CVS는 Oak Street Health 1차 진료 센터를 통합한 새로운 매장 디자인을 테스트하고 있다. 시범 운영에서는 Oak Street 클리닉이 일부 소매 공간을 인수하여 환자들이 약국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약사와 쉽게 연락하여 처방전을 논의할 수 있게 만드는 등 접근성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 Bloomberg 기사

**금·은 등 귀금속 고공행진..."금리인하 기대감에 더 오를 수도"****"삭소뱅크 "금값 곧 온스당 2천400달러 도전할 것"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금과 은, 백금 등 귀금속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곧 온스당 2천400달러에 도달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나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져 금 등 귀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